

계속되는 더블링 '자율방역' 한계 우려

광주·전남 코로나 신규확진자 두달만에 3천명대... 전국 7만3582명 역대급 전파력 '켄타우로스' 확산... 다음달 최대 28만명 정점 전망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역대급 전파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신종 변이인 '켄타우로스'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자율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 각각 1368명, 165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는 지난 18일보다 하루 사이에 788명 늘었고, 일주일 전인 11일보다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도 1658명이 확진돼 전날에 비해 1111명이나 늘어났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2.2배정도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3582명으로, 전날(2만6299명)의 2.8배로 급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2일(3만7347명)의

1.97배로, 1주 사이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신규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규모와 기간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앞세운 정부는 사회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보다는,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율 방역'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가파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자율 방역만으로는 유행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날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수정된 유행 예측치를 내놓았다. 확진자가 8월 중 10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8월 중순~말에 25만명 전후(20~28만명)로 정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9월 말 18만5000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수정 예상치보다 더 빠른 속도, 더 큰 규모로 유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파력이 센 동시에 감염·백신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BA.5의 확산도 예상된다.

BA.5 변이 국내 검출률은 7월 2주 기준 47.2%로 전주(23.7%)보다 23.5%포인트 급증했다. 앞선 대유행 때보다 BA.5보다도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도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확산도 시작했다.

이미 우세화 되어가고 있는 BA.5보다 BA.2.75의 전파력·면역회피능력이 더 강하다면 BA.5로 인한 유행 정점이 나타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A.2.75로 인한 또 다른 정점이 나타나 '쌍봉형' 유행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비슷한 급의 유행이 2개 있으면 쌍봉형 곡선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쯤 BA.5 유행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BA.2.75가 유행을 주도해 곡선이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판문점 견학 재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이 내외신 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사망 위로금 1억

'사인불명'에도 1천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준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상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심의기준 4-1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된 주요 이상 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출혈·중추신경계·갑상·비대 증후군·(황당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알콜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이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했던 대로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분야 국제인증 획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분야 국제수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아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날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Sigma-Aldrich)에서 주관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수련도 시험에 참가해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기관인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는 전세계 환경 관련 시험실의 분석능력 숙련도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가 인증한 국제수련도 시험 평가 기관이다.

국제수련도 시험은 매년 전 세계 분석기관을 대

상으로 시험 분석능력을 검증·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방법은 일정농도의 물질이 함유된 미지시료를 받아 분석한 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세계 각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분석결과와 상호비교를 통해 적합(Acceptable) 또는 부적합(Not Acceptable)으로 평가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분야 평가항목인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유기인계농약, 이온성분 등 총 17개 항목에서 '적합'을 받아 수질검사에 대한 측정 및 분석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우수 분석기관임을 인정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역사신문 만들기'

NIE 체험프로그램 참가 학교 모집

광주일보가 신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진행되는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과 관련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광주 지역 초·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대상 및 기간
모집대상: 광주지역 초·중학교(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기간(일시): 2022년 8월 15일
-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
역사신문·학교신문 만들기 등 체험학습
역사신문 제작을 위한 역할분담 및 기획, 취재, 제작 과정 교육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참가
- 지역신문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신문과의 소통,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역사신문·학교신문 만들기 등 체험학습
선정된 6개 학교 신문사 방문 현장 체험학습
역사신문 제작을 위한 역할분담 및 기획, 취재, 제작 과정 교육
- 선정학교 지원 내역
기자정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감사 지원
학교별 기자가 찾아가는 교육 실습 및 현장 체험
- 담당자 연락처
광주일보사 제2사회부 (062-220-0680, 010-7609-4937)

光州日報社

무안·신안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무산

무안군, 도에 포기서 제출 "사업타당성 미확보·피해보상 전무"

무안·신안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무안군의 사업 포기서 제출로 사실상 일로 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은 최근 '무안·신안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포기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무안군은 "장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부족, 주민 공론화 과정 부족 및 사업타당성 미확보, 해수유통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발생 시 예상되는 농·어업인 피해저감 대책 및 보상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포기 사유를 밝혔다.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국비 336억원과 지방비(무안·신안 각 72억) 등 480억을 투입해 무안 해제와 신안 지도 사이의 갯벌(1.71km)에 설치된 제방을 철거하고 바닷물을 흐르게 해 늘지화면 갯벌을 복원하자는 것으로,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 시·군과 추진 계획을 구상해왔다.

무안군은 그러나 해수 유통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어촌계 및 제방 내부 토지 경작자들의 반대와 추가 사업비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검토한 뒤 현 상황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남도측에 전달했다. 사업 추진 시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할 바닷물 유통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비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무안군측 입장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무안의 사업 포기과 관련, 전남도가 국내 최대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민과 상생 가능한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